

고래포획 단속, 동해보다 서해인 까닭은?

동해 식문화 발달했지만 고래잡이 성행에 서식지 옮겨
서해 최근 5년간 6066마리 잡혀...전체 62.5% ‘최다’

동해에서만 이뤄지던 해경의 고래 불법 포획 단속이 서해바다로 확대됐다. ‘바다의 로또’ 고래가 동해에서 서해로 이동했다는 결과?

전문가들은 고래는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서해 등 모든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고래 불법포획이 포항·울산 등에서 이뤄진 탓에 단속 또한 동해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바다에서 잡힌 고래는 총 9710마리다. 이 중 99%인 9618마리는 그물에 걸려 우연히 잡힌 ‘흔획’이고, 나머지 92마리는 불법 포획해 잡은 것이다.

바다별로 보면 서해가 6066마리(흔획 6060·포획 6)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동해에서 2496마리(25.7%, 흔획 2410·포획 86), 남해 1064마리(11%, 흔획 1064), 제주도 84마리(0.8%, 흔획 84)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고래 출현이 잦고 고래잡이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동해보다 서해에서 더 많은 고래가 잡힌 것이다.

고래는 해마다 2000마리 가량 잡혔다. 2011년 1140마리, 2012년 2669마리, 2013년 1973마리, 2014년 1730마리, 2015년 2199마리다.

종류별로 상괭이가 전체의 6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고래가 17.2%, 밍크고래 4.2%, 낮돌고래 1.2% 순이었다.

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그물에 걸린 고래를 건져올려 신고하면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

게는 1억원까지 받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래 불법 포획도 끊이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일 충남 보령시 외연도 서방 38마일 해상에서 고래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현장에서 작살 3개가 꽂힌 고래를 발견했고, 도주한 불법포획 어선을 수사 중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이경리 연구원은 “많은 사람이 고래는 동해에만 출몰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서해와 남해에도 많은 고래가 있다”며 “옛날부터 동해 쪽이 고래 식문화가 발달하고 불법 포경 활동이 성행해 국민의 인식이 동해에만 고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제보호종인 상괭이가 가장 많이 잡히는데 주 서식지인 서해에서 행해지는 ‘어망을 이용한 고기잡이’ 때문”이라며 “동해보다 바다 깊이가 낮은 서해의 경우 바다 깊은 곳까지 늘어뜨려 그물을 치는데 길이가 2m가량 되는 상괭이는 어망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고래류 불법포획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래잡이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동해에서 불법활동 중인 포경업자들이 서해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귀경길 ‘영금영금’ 30일 오후 장성군 남면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 인근 상공에서 전남경찰청 항공대 소속 962호 헬기가 귀경차량 교통관리에 나섰다. 경찰은 연휴기간 600m 상공에서도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200만 화소급 적외선(IR) 카메라가 장착된 헬기 2대를 투입,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영상·사진 자료를 수집, 단속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항공촬영협조=전남경찰청 항공대 956호기 기장 김홍규 경위, 부기장 송태중 경위>

“운전 중 발작 30대 수시 적성검사 받아라”

경찰,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키로

경찰이 설 연휴기간 운전 중 발작을 일으킨 30대 남성을 발견, 자동차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 중인 이 남성은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광주서부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작을 일으킨 운전자 A(31)씨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중앙분리대 부근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도로에 쓰러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그는 명절을 맞아 출

로 차를 몰고 고향으로 가던 중 경련, 호흡 곤란 등 뇌전증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후속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자 A씨가 뇌전증을 앓고 치료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포함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게 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운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3 해질 18:00
달출 09:26 달짐 21:21

기온 폭 강추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주 맑은 뒤 흐림	-6/5	보성	맑은 뒤 흐림	-7/6
목포	맑은 뒤 흐림	-5/3	순천	맑은 뒤 흐림	-5/7
여수	맑은 뒤 흐림	-4/6	영광	맑은 뒤 흐림	-8/1
나주	맑은 뒤 흐림	-7/3	진도	구름 조금	-3/2
완도	맑은 뒤 흐림	-4/5	전주	구름 조금	-8/2
구례	맑은 뒤 흐림	-9/5	군산	구름 조금	-8/2
강진	맑은 뒤 흐림	-6/5	남원	구름 조금	-10/5
해남	구름 조금	-6/3	축산도	구름 많음	-1/3
장성	맑은 뒤 흐림	-7/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25	04:10
	21:54	16:42
여수	간조	만조
	04:53	11:24
	17:28	23:37

◇주간 날씨

2/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3/6	-5/6	-2/7	-2/8	0/7	-2/8	-1/8

◇생활지수

	매우높음
	높음
	매우높음
	감기
	관심

체감온도 ‘뚝’...전국 다시 ‘꽂꽂’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질 전망이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최저기온이 구름과 곡성은 영하 9도, 그리고 담양과 화순, 영광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에는 나주의 아침 최저기

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관계자는 “설 연휴 내린 눈이 다 비가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춧불, 주말 다시 타오른다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설 명절 이후 첫 주말인 다음달 4일 오후 6시에 광주 금남로에서 제 14차 광주시국 촛불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설 명절과 지난 주말(28일)이 겹친 탓에 지난해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13주 만에 촛불집회를 열지 않은 주체 측은 새해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재벌 개혁 등 적폐 청산을 목표로 주말 촛불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금남로 집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모금(후원계좌) 광주은행 1121-020-117858)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는 4일 오후 순천, 목포, 여수 등 전남지역 15개 시·군에서도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김한영기자 young@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된다. 현장 검토본 공개 당시 제기됐던 왜곡·편향 사례가 얼마나 수정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이영 교육부 차관이 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형태로 국정 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에 적용할 집필기준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펴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올해 희망학교를 받아 연구학교로 지정,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중·고교에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